

(토론2)

토정 이지함과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사박물관장 강 종 원

현재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물질자원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지역의 내재적인 성장발전을 촉진시키는 사회의 문화적 역량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잠재력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토론회의 경우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정 이지함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특히 기이한 행동과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실체와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명세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나 현창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토정에 대한 관심과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그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토정에 대해 편린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두 선생님의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이 토정의 학문적 연구나 역사성을 토론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토정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고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민중에게 전해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이이화)」에서는 토정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으며, 특히 토정비결이 갖는 민중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따르게 되는 고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결인청’의 실재와 활용방안(임선빈)」에서는 토정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결인청에 대한 검토, 나아가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토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금일 주제에 대한 의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가. 토정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보다 선조수정실록에 훨씬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는 후대인이 기억하고 싶은 이지함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은 사초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정실록의 경우에는 민간의 전승이나 설화적인 이야기 등도 기록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정의 경우 위낙 기인적 성격이 있어 특별하게 기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토정이 기민을 구휼한 내용에서 그 시기에 대한 문제 : 선조 3년(1570)에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어 이를 토정이 큰 집을 지어 구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토정이 처음 관직에 진출한 것은 1573년 포천현감이고, 그후 1578년 아산현감에 등용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아산에서 결인청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인청의 명칭이 등장한 시기도 불분명하며, 소설 토정비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청 서기가 등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청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신데, 혹시 그의 문집 등에 관련내용이 있는지요?

다. 조선시대 구빈기관으로 진휼청과 상평창 등이 존재했는데, 결인청을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이들 국가의 공식적인 구빈기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대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구빈기관과 결인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정이 결인청에서 빈민을 구휼할시 사용된 예산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을까도 궁금합니다.

라. 토정의 경우 보령시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산시의 경우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